

장애학생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현황연구 -전북 소재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장명화¹, 정성학¹, 이민규¹, 배선영^{1*}

¹서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

A Study on the Convenient Facilities for Accessibility to disabled student of 4-year university campus in Jeollabukdo

Myeong-Hwa Jang¹, Sung-Hak Jung¹, Min-Gyu Lee¹, Seon-Young Bae^{1*}

¹Dept. of Occupational therapy, Seo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전북소재 4년제 대학교 6개를 선정하고, 각 대학의 편의시설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 및 기타시설로 나누고 각 시설이 편의증진법의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학교 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편의증진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편의증진법 기준에 맞더라도 이용의 불편함과 관리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대학 내 보편적 설계에 기초한 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도를 높이며, 수요자 중심의 고등교육환경 발전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논의점이 제시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ditions of disability facilities in universities and to improve disability facilities for disabled students. First, we selected six universities in Jeollabukdo and categorized their accommodations into exterior connection facilities, interior facilities, sanitation facilities, guidance facilities, and other facilities. We evaluated their fidelity to guidelines on accommodations under the convenience enhancement ac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universities generally did not fit the guidelines, and they did not provide an appropriate environment for students because of inconvenient utilization and lack of management, even though they were equipped. Universities should make a greater effort to improve and expand the accommodations to establish a consumer-centered higher-education environment. This can be done by universal design and enhancing the fidelity for an advanced higher-education environment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Keywords : Convenient facilities, Disabled student, Integrated education, University campu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다양한 교육적 필요와 능력을 가진 학생통합교육은 장애와 비 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교육을 받는 것으로 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교 행정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3]. 장애학생에게는 일반사회에 적응할 능력을 길러

주고, 일반학생에게는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장애학생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처럼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4], 장애학생의 교육적 평등권에 대한 인식 증가와 더불어 이제는 보편화된 교육 형태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5]. 그러나 통합교육이 내용면에서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내 편의시설이 적절히 갖추어 있지 않다면

*Corresponding Author : Seon-Young Bae(Seonam Univ.)

Tel: +82-63-620-0424 email: na7096@hanmail.net

Received February 5, 2016

Revised (1st February 22, 2016, 2nd March 8, 2016)

Accepted April 7, 2016

Published April 30, 2016

통합교육이 장애학생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어 지기는 힘들다[6-8]. 따라서 통합교육이 제공되는 학교 편의시설의 구축은 장애학생들이 또래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누리며, 통합교육을 제공받으며 학교생활을 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발달과 더 나아가 성공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5].

장애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은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이하 편의증진법)’ 제정을 통해 제시된 것으로, 이 법령에 의하면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해야 할 뿐 아니라 독립적인 접근이 편리하며, 어떠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9].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열악한 실정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편의시설은 공공 건축물이나 일반 건축물에 비해 편의증진법 준수가 소홀하게 취급되어, 장애학생의 학교 내 이동이 어렵고, 각 학교시설에 대한 접근권리가 보장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장애학생의 학습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10]. 그러므로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생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에게 입학문호를 개방함과 동시에 편의시설 설치 등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해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편의시설 세부항목별 평가내용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시설, 설비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대학 내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및 다양한 시설설비 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학의 실질적 교육여건과 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따라서 2011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조사 및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6개 4년제 대학교 메인캠퍼스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대학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기준에 따라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및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및

별표1」, 「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에 대한 연구」에 기준하여 10개 부분(내부시설, 매개시설, 위생시설, 안내 및 기타시설, 강의실, 도서관, 강당, 식당, 체육관, 기숙사 및 침실)으로 세분화하여 편의증진법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29개의 평가 항목을 5단계로 분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편의시설의 개념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학생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의미한다[11]. 즉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단순한 이동을 행할 때 비 장애학생들과 전혀 다른 정도의 편의시설의 의미하며 모든 장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리(handicap)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말한다.

2.2 장애인 편의시설 유형 및 설치기준

대학 시설은 대학을 다니는 본래의 목적인 교육을 위해서 대학의 모든 시설물, 특히 건축물에 접근상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대학 장애인편의시설의 주된 목적이다. 물리적 장애의 제거를 위한 대학 내 편의시설 개선은 시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11].

대학시설은 「편의증진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학교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및 별표1」,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에 대한 연구」 기준에 의거 대학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고 기타시설을 다시 강의실, 도서관, 강당, 식당, 체육관, 기숙사 및 침실 등으로 세분화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내 장애인편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제시한 시설별 대학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2.2.1 매개시설

대학 내의 외부시설은 모든 종류의 장애인이 교내 각 시설로 안전하게 이동·접근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치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기본시설 및 도서관, 체육관, 강당, 식당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내 안전보행통행로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교내 보도 및 접근로의 바닥 재질 및 마감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어야 하며, 보도블록 등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의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2cm이하가 되어야 한다.

셋째, 보도 및 접근로의 단차는 없는 것이 가장 좋으나, 교사시설로 연결된 보도 및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에는 진행방향의 높이 차이가 3cm이하가 되어야 한다.

넷째, 보도 및 접근로의 유효폭과 기울기는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0cm이상으로 하고, 보도 진행방향 기울기는 1/18이하로 하여야 한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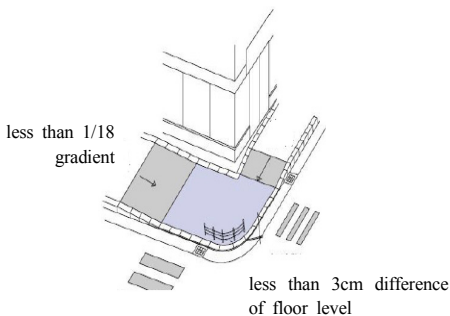


Fig. 1. Boundaries footway and carriageway.

다섯째, 보행안전통행로는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경계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과 색상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가 3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속 경사로는 폭90cm이상, 기울기1/12이하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접근보행로는 계단, 간판, 진보대, 가로수, 가로등, 불라드 등의 보행 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

안전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섯째, 시각장애인의 유도에 있어서 보행자와 차량이 교행 하는 부분은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도록 바닥재의 재료, 색상 등을 달리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통행 또는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장애인주차구역의 크기는 폭3.3m이상, 길이 5m이상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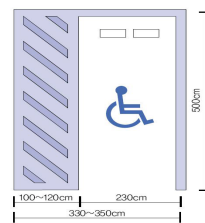


Fig. 2. Disabled parking

2.2.2 내부시설

모든 교사시설은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며, 수평 수직이동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치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사시설의 주출입구의 연결접근로의 높이 차이는 3cm이하가 되도록 하고 주출입문까지의 휠체어 등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설치 시 폭90cm이상, 기울기 1/12이하로 설치하고, 손잡이 높이는 80cm이상~90cm이하로 한다. 굵기는 3.2cm이상~3.8c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교사시설의 주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주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80cm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주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는 1.2m이상 확보한다. 또한 주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80cm~90cm사이에 위치하며 그 형태는 레버(Lever)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교사시설의 일반 출입문은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되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80cm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시설 복도의 바닥면에는 3cm이상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

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10cm이내) 또는 충돌위험이 있는 설치물은 제거 한다. 복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한 경우 90cm까지 완화)하여야 하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기울기는 1/12 이하가 되어야 한다.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15c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 면에 손잡이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경사로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 이상의 추락 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섯째, 계단의 참은 유효폭 1.2m 이상 확보하고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계단측면에 굽기 3.2cm 이상~3.8cm 이하, 높이 80cm 이상~90cm 이하의 손잡이가 연속되게 설치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사시설 안에서의 수직이동은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승강기 내부휠체어 사용자용 조작 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5cm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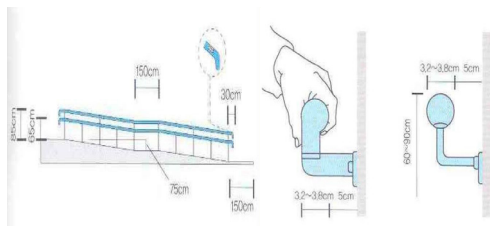


Fig. 3. Handle with Wall

2.2.3 위생시설

위생시설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용

또는 겸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교사시설에서는 모든 화장실의 1개소 이상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치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장애인화장실을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고,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80c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화장실의 유효바닥면 크기가 폭 1m 이상, 깊이 1.8m 이상 또는 대변기 전면에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대변기의 양 옆에는 규정에 적합한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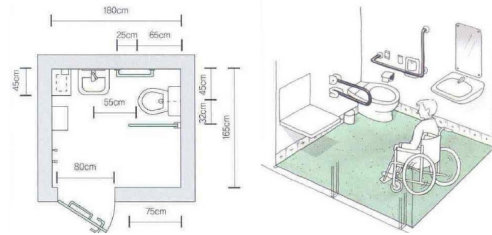


Fig. 4. Disabled toilet

2.2.4 안내시설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보통신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유도 및 안내표시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치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통신 및 공중전화 등은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5cm 이상, 깊이 25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화 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 차이를 두지 않아야 하며, 동전 또는 전화카드 투입구, 전화 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1.4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소(인터넷 카페 등)에 장애인전용석 등을 배려하여야 한다<Fig. 5>.

둘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까지 유도하는 안내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도록 권장한다.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 장애

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음료대의 분출구는 70cm 이상 80cm 이하로 하고 음료대의 수도꼭지는 누름 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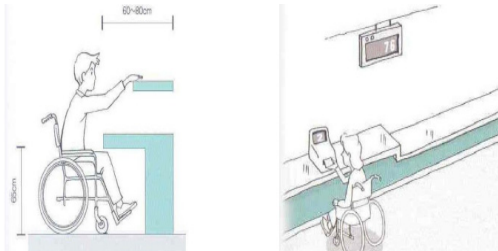


Fig. 5. Information desk

2.2.5 기타시설

기타시설은 강의실, 도서관, 강당, 식당, 체육관, 기숙사 및 침실 등이 해당된다.

첫째, 강의실은 학습권을 보장하기에 강의실의 위치와 구조가 적절해야 하며, 적절한 교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강의실 내부 통로가 휠체어가 통행하기에 적절하도록 80c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의실 내부가 휠체어가 회전을 할 수 있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도서관은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서관의 정보자료는 접근 및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여야 하고, 자료검색을 장애인이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가식 서가를 휠체어 장애인 등이 차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셋째, 학습과 관련된 다목적 집회실, 강당 등에는 진출·입 및 좌석, 가청시설 등의 기본시설·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휠체어 사용자의 진·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관람석이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집단 보청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넷째, 구내식당, 매점 등은 접근 및 이용의 차별이 없도록 고려되어야 하고, 적절한 좌석배치 등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체육관과 체육관의 샤워시설은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에 차별이 없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생기숙사에는 객실과 화장실, 욕실에 휠체어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4cm 이상 45cm 이하가 되어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Fig.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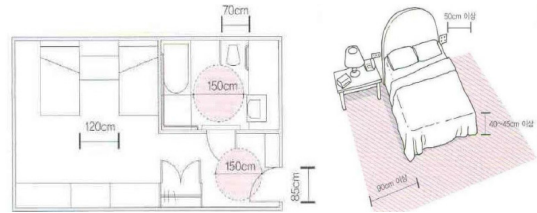


Fig. 6. Secure the wheelchair space

2.2 선행연구 분석

대학교 편의시설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대학교 특례 입학제도가 1995년에 실시된 이후 참여대학의 수와 그 대상 장애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00년 이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장애인 대학교 특례 입학제도를 실시하는 서울의 4개 대학의 부속공간인 식당과 학생회관, 강의동, 도서관을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편의증진법에 기초하여 그 물리적 환경을 평가하기도 했고[9], 충청남도 서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8개 대학의 강의용 건물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연구도 있었다[13]. 또한 서울지역 총 28개 4년제 대학교를 선별하여 각 학교의 도서관, 학생회관, 건물의 주차장, 공중전화, 우체통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14]. 이러한 특정지역 대학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는 대부분 대학의 물리적 환경은 편의증진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편의증진법 기준에 맞는 시설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용의 불편함과 관리부족으로 인해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힘든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학교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킨 선행연구의 경우에는 그 분석 기준이 편의증진법에 포함되는 편의시설 공간들을 모두 포함하기 보다는 몇 개의 공간만을 선택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았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은 아직 편의증진법에 기초한 우리나라 대학교의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3. 조사대상 선정 및 현황분석

3.1 조사대상 선정 및 개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소재 4년제 대학 중 조사에 거부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곳의 대학을 제외한, 총 6개의 대학을 본 연구의 조사대상 학교로 선정하였다. 대학교의 특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대학을 분류해 보면, 국립대학이 1개, 사립대학이 5개가 포함되었고, 6개 대학 모두 특수교육이나 물리치료, 작업치료, 사회복지학과 등과 같은 장애학생 관련학과를 설치하고 있었다.

A대학은 1991년 개교하여 의과대학을 비롯한 6개학부 및 대학원과 학군단이 있으며, 학생정원 6,567명, 재학생수는 1,679명, 장애학생 수는 7명이다. B대학은 160만㎡의 교지에 1946년에 개교하여 15개 단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9개 대학원과 10개의 대학부속병원을 갖추고 있다. 학생정원 15,361명, 재학생 수는 16,256명, 장애학생 수는 12명이다. C대학은 1979년에 설립한 사립대학으로 9개의 단과대학과 4개의 대학원이 있으며, 학생정원 7,665명, 재학생수 8,081명 장애학생 수는 43명이다. D대학은 1947년에 설립한 국립대학으로 14개의 단과대학과 13개의 대학원 이루어진 종합연구중심 대학이며, 재학생 수 19,576명, 장애학생 수는 34명이다. E대학은 1965년에 설립한 사립대학으로 1983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여 9개 대학과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정원 11,080명, 재학생수 11,613명, 장애학생 수는 33명이다. F대학은 1977년에 개교하여 4개의 단과대학과 10개의 부설연구소가 있으며, 학생정원 5,740명, 재학생수 5,116명, 장애학생 수는 4명이다<table 1>.

Table 1. Summary of University Facilities

University	Capacity student-faculty	Area of campus (㎡)			Disastudent-faculty ratio
		Standard area	Retention area	Retention ratio	
A	1,679	17.309	69.472	401.5	7 (0.4%)
B	16,256	273.950	309.899	113.1	12 (0.1%)
C	8,081	131.138	199.173	151.9	43 (0.5%)
D	19,576	378.559	501.402	132.5	34 (0.2%)
E	11,613	183.587	191.030	104.1	33 (0.3%)
F	5,116	86.454	109.144	126.2	4 (0.1%)

3.2 조사대학의 현황 및 분석

3.2.1 매개시설

매개시설은 의무사항에 속하며, “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항목이 이에 속한다. 매개시설의 현황평가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exterior connection facility status evaluation

subsection	score	A	B	C	D	E	F	average	%
quality of the material	1.0	0.4	1.0	0.7	0.7	1.0	0.9	0.80	80%
difference of floor level	2.0	0.4	2.0	2.0	2.0	2.0	2.0	1.73	87%
width/gradient	1.0	0.2	0.5	0.6	0.7	0.7	0.5	0.62	62%
Walking safe passage	3.0	0.36	2.01	1.68	2.01	1.68	0.69	1.79	60%
guide for blind	2.0	0.44	2.0	1.44	1.44	1.44	0.88	1.46	73%
Disabled parking places	1.0	0.1	0.6	0.6	0.5	0.8	0.9	0.60	60%
Disabled parking	1.0	0.3	0.2	0.5	0.4	0.8	0.6	0.53	53%
total	11	2.2	8.31	7.52	7.75	8.42	6.47	6.78	62%

교내 보도 및 접근로의 바닥재질과 마감상태의 점수는 1.0 만점의 평점 0.8점을 획득하였으며, 바닥이 미끄러움이 없는 재질(인터로킹블록, 점토블록, 투스콘 등)로 평탄하게 잘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대학은 바닥재질이 미끄럽고, 2cm이상의 도로틈새가 나타나 평점 0.4로 최하위였다.

보도 및 접근로 단차의 조사점수는 2.0 만점의 평점 1.73점을 획득하여 대부분 3cm이하의 보도 단차높이를 보여 통행에 문제가 없으나 A대학은 일부 단차가 5cm 이상으로 장애인의 접근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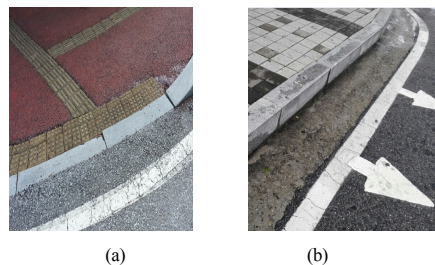


Fig. 7. difference of floor level (a) appropriate (b)Inappropriate(>3cm)

보도 및 접근로 유효폭과 기울기의 점수는 1.0 만점의 평점 0.62점을 획득하였으며, 휠체어의 접근 유효폭 1.2m이상 확보하였고, 기울기의 경우는 1/12이하로 잘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대학은 유효폭이 확보가 안 되어있고 기울기도 1/8이하여서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Fig.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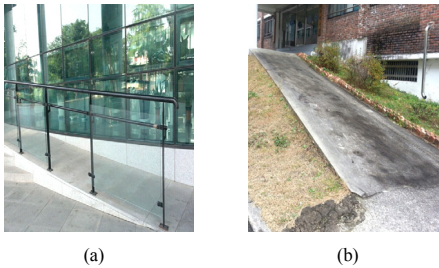


Fig. 8. effective width and gradient
(a) appropriate (b)Inappropriate(gradient 1/8)

보행안전통로는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경계석이나 울타리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닥재의 질감과 색상을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안전통로의 확보와 연속성의 점수는 3.0 만점의 평점 1.79점을 획득하였으며, 보도와 차도가 잘 분리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구간에 안전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A, F대학은 보도와 차도가 잘 분리되어 있지 않고 안전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의 유도와 경고시설의 점수는 2.0 만점의 평점 1.46점을 획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횡단 지역의 등의 교행지역에 색상 및 점형 블록으로 구분 되어있고, 위험지역에 있는 일부에 난간 등의 안전시설 설치가 되어 있다. 하지만 A, F대학은 이러한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A대학은 평점 0.44로 최하위였다<Fig.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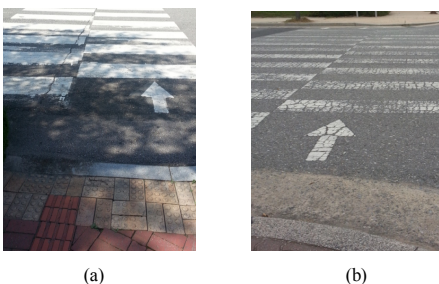


Fig. 9. guide for blind
(a) appropriate (b)Inappropriate

주차장의 위치, 크기 및 수의 점수는 1.0 만점의 평점 0.6점을 획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적정위치에 규정에 맞는 크기로 적정 주차대수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A대학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까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주차 구역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표시, 유도, 안내표시의 점수는 1.0 만점의 평점 0.53점을 획득하였다. E, F대학은 장애인 주차 구역이 우수하게 설치 및 확보 되어있으나, 나머지 대학들은 장애인 주차 구역 안내표시가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주차 구역까지의 유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3.2.2 내부시설

내부시설은 의무시설에 속하며, “출입구(문), 복도, 계단 혹은 승강기”항목이 이에 속한다. 내부시설의 현황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 Interior facility status evaluation

subsection	score	A	B	C	D	E	F	average	%
Main Entrance	2.0	0.4	1.2	0.4	0.4	0.8	0.4	0.60	35%
effective width, structure	1.0	0.9	1.0	0.4	1.0	1.0	0.7	0.83	83%
effective width, structure, door knob type	1.0	0.6	1.0	0.4	1.0	1.0	0.7	0.78	78%
effective width of passage	1.0	0.6	1.0	0.9	0.9	0.8	0.7	0.82	82%
effective width, gradient	1.0	0.3	0.7	0.2	0.8	0.6	0.6	0.53	53%
effective width of stairs	1.0	0.3	0.7	0.9	0.9	0.9	0.6	0.72	72%
vertical movement	5.0	0.84	3.34	0.84	3.34	5.0	4.17	2.92	58%
effective ground size	1.0	0.2	0.8	0.2	0.8	1.0	0.8	0.63	63%
total	13	4.14	9.74	4.24	9.14	11.1	8.67	7.84	61%

내부시설의 평가결과 교사시설의 주출입구 접근성의 점수는 2.0 만점의 평점 0.60을 획득하였으며, B대학은 타인의 도움 없이 주출입구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평점 1.2로 최상위이고 B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주출입구에 단차가 있고 경사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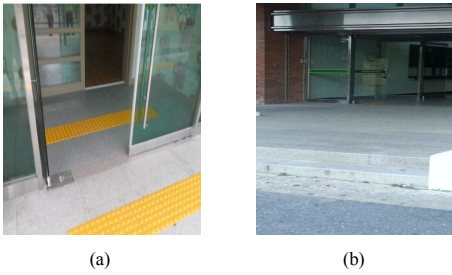


Fig. 10. Main Entrance
(a) appropriate (b)Inappropriate

교사시설의 주출입문 전, 후의 활동공간의 점수는 1.0 만점의 평점 0.83을 획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주출입구 단차가 2cm이하 이며, 유효거리가 1.2m이상 확보되어 있으나 C대학의 경우 2cm이상의 단차 있고 유효거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평점 0.4로 최하위였다.

교사시설의 일반출입문 활동공간의 점수는 1.0 만점의 평점 0.78을 획득하였으며, 출입구 바닥면에 문턱이 없으나 C대학의 경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과 유효거리, 손잡이 형태도 규정에 맞게 확보되어 있지 않아 평점 0.4로 최하위였다.

교사시설 복도의 유효폭, 단차해소의 점수는 1.0 만점의 평점 0.82를 획득하였으며, 모두 복도의 유효 폭이 1.2m이상 확보되어 있고 복도 벽면에 돌출물이나 충돌 위험이 있는 설치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휴식 참, 난간, 안내의 점수는 1.0 만점의 평점 0.53을 획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경사로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의 위치 안내 및 유도표시가 잘 되어있는 반면 A, C대학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내부 경사로가 있으나 설치기준에는 미흡하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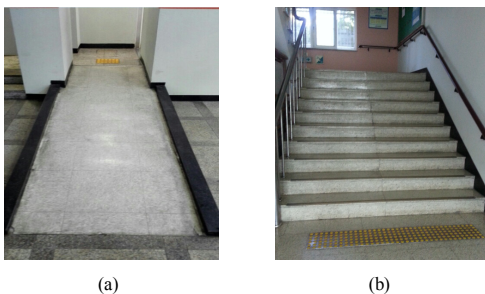


Fig. 11. Ramp
(a) appropriate (b)Inappropriate(no ramp)

계단의 유효폭, 난간 굵기 및 높이의 점수는 1.0 만점의 평점 0.72를 획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이 1.2m이상 확보되어 있고 손잡이 굵기가 3.2cm 이상~3.8cm이하로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A대학은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이 1.2m이상 확보되어 있지 않고 손잡이 굵기가 설치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시설 안에서의 수직이동의 점수는 5.0 만점의 평점 2.92를 획득하였으며, A, C대학의 경우 승강기가 없고 건물 내부에 경사로가 규정에 맞지 않았으나 A, C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장애인이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12>.



Fig. 12. elevator
(a) elevator (b) disabled elevator

승강기, 휠체어리프트의 유효한 바닥 크기의 점수는 1.0 만점의 평점 0.63을 획득하였으며, 승강기의 활동공간이 1.4m×1.4m이상이고 내부바닥 면적 폭이 1.1m이상이었다. 하지만 A, C대학은 승강기가 없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2.3 위생시설

위생시설은 의무시설에 속하며, “화장실 대변기”항목이 이에 속한다. 위생시설의 현황평가 결과는 Table 4과 같다.

Table 4. Station facility status evaluation

subsection	distribution	A	B	C	D	E	F	average	%
disabled toilet	4.0	3.33	3.33	4.0	4.0	2.66	2.66	3.33	83%
gate structure, size of toilet	3.0	2.7	2.40	3.0	3.0	2.7	2.1	2.65	88%
knob, height, placement	2.0	1.56	2.0	1.85	1.56	1.71	1.42	1.68	84%
total	9	7.59	7.73	8.85	8.56	7.07	6.18	7.66	85%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의 점수는 4.0 만점의 평점 3.33점을 획득하였다. 조사대학 모두 각 건물마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용 대변기도 남·여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다<Fig. 13>.



Fig. 13. disabled toilet
(a) toilet (b) washbasin

화장실 출입문 구조, 크기, 접근성의 점수는 3.0 만점의 평점 2.65점을 획득하였으며, 조사대학 모두 화장실이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고 출입문의 유효폭, 바닥면의 크기나 깊이, 대변기가 바닥면으로부터 40~45cm이하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위생기기의 손잡이, 세정장치, 높이, 배치의 점수는 2.0 만점의 평점 1.68점을 획득하였으며, 조사대학 모두 위생기기의 손잡이, 세정장치, 높이, 배치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3.2.4 안내시설

안내시설은 권장시설에 속하며, “통신, 유도과 안내표시, 음료대, 수도꼭지, 휴게실 유무”항목이 이에 속한다. 안내시설의 현황평가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guidance facility status evaluation

subsection	distribution	A	B	C	D	E	F	average	%
approach and utility	2.0	0.55	0.84	0.98	1.42	1.42	0.98	1.03	52%
induce, common symbols	2.0	0.44	1.33	1.11	1.11	1.77	0.88	1.11	56%
height, structure	1.0	0.6	0.9	0.4	0.8	1.0	0.9	0.77	77%
arrange	1.0	0.6	0.9	0.6	0.8	0.9	0.6	0.73	73%
total	6	2.19	3.97	3.09	4.13	5.09	3.36	3.64	61%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 및 이용의 점수는 2.0 만점의 평점 1.03을 획득하여, 장애인이 정보통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 E대학의 경우 장애인이 정보통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나 정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장애인 전용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4>.



Fig. 14. Communication approach
(a) public telephone (b) computer search

모든 시설에 대한 적절한 유도과 안내표시의 점수는 2.0 만점의 평점 1.11을 획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편의시설까지의 유도과 안내표시가 규정에 맞게 되어 있다. 하지만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A, F대학은 편의시설의 유도과 안내표지 부착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대의 높이와 수도꼭지 구조의 점수는 1.0 만점의 평점 0.77을 획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음료대나 수도꼭지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높이와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C대학의 경우 음료대의 높이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높고 수도꼭지가 누름 버튼식, 레버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들이 이용하는 휴게실의 점수는 1.0 만점의 평점 0.73을 획득하였으며, 모두 장애인이 휴게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소파 및 침대 등이 잘 구비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5 기타시설

기타 시설평가는 권장시설에 속하며, “강의실, 도서관, 강당, 식당, 체육관, 기숙사”항목이 이에 속한다.

기타시설의 현황평가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Other facility status evaluation

subsection	score	A	B	C	D	E	F	average	%
class room	3.0	1.0	2.5	2.5	2.75	2.25	1.0	2.14	71%
library	3.0	0.25	1.25	1.5	2.5	2.0	0.5	1.33	44%
auditorium	1.0	0.5	0.2	0.4	0.8	0.8	0.6	0.55	55%
cafeteria	1.0	0.4	0.5	0.8	0.5	1.0	0.7	0.65	65%
gym	1.0	0.5	0.7	0.7	0.9	0.9	0.6	0.72	72%
facilities of dormitory room	1.0	0.5	0.75	1.0	1.0	0.8	0.6	0.78	78%
additional facilities of dormitory	1.0	0.5	0.5	0.9	0.75	0.55	0.55	0.63	63%
total	11.0	3.65	6.4	7.8	9.2	8.3	4.55	7.27	66%

강의실의 출입 내부이동, 시야확보의 점수는 3.0 만점의 평점 2.33을 획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휠체어통행로 확보와 휠체어 회전 공간 및 별도의 지정석의 확보가 되어있다. 하지만 A, F대학은 휠체어의 통행로 확보와 회전 공간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Fig.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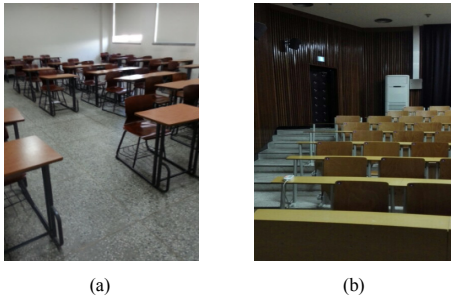


Fig. 15. Lecture room
(a) appropriate (b)Inappropriate

도서관의 열람실, 자료 검색실, 개가식 서가, 자유열람실의 점수는 3.0 만점의 1.75을 획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장애학생이 접근하기 편리한 구조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열람실 및 자료검색을 장애인이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개가식 서가 또한 휠체어장애인 등이 불편함 없이 이용 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하지만 A, F대학은 도서관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Fig. 16>.

강당의 다목적 집회실 객석 확보 및 출입의 점수는 1.0 만점의 0.62점을 획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휠체어 사용자의 진·출입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이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B, C대학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의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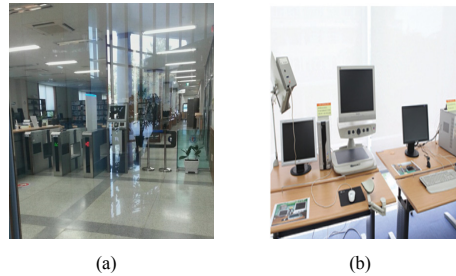


Fig. 16. Library
(a) doorway (b) Desk at the handicapped

식당 좌석, 배식대, 식탁의 이용에 점수는 1.0 만점의 0.70점을 획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구내식당과 매점에 접근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A대학은 장애학생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체육관의 출입과 샤워시설의 점수는 1.0 만점의 0.78 점을 획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체육관과 샤워시설의 접근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A 대학은 샤워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 학생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Fig.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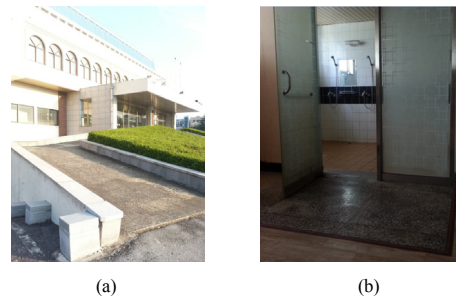


Fig. 17. Gym
(a) Entry ramp (b) Inappropriate shower room

기숙사의 객실 확보의 점수는 1.0 만점의 0.84점을 획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 휠체어 회전 공간이 확보 되어있다. 하지만 A대학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 없고 접근하기가 어려워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기숙사의 출입구, 화장실, 샤워 및 욕실의 점수는 1.0 만점의 0.70점을 획득하였으며, C와 D대학은 객실이나 화장실 등에 휠체어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고 콘센트, 스위치, 수납 선반, 옷걸이 등의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80cm이상 1.2m 이하로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이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장애인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3.3 종합평가분석

전북 소재 4년제 대학의 편의시설을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매개시설의 경우 A대학과 F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교내 보도에는 보도블럭 등으로 평탄하고 틈이 없이 시공되어 있었으며, 접근로에는 연석 및 경계석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였고, 보행로 및 접근로는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6.78점이었다.

내부시설의 경우 총점은 13점으로 평균점수는 7.84점으로 E대학이 11.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A대학과 C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평균 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A대학은 교사시설에 수직이동시설(승강기, 경사로)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학생의 교사시설 내 접근의 제한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Convenient facilities evaluation of 4 year University campus in Jeollabukdo

facility	A	B	C	D	E	F	average	%
exterior(11)	2.2	8.31	7.52	7.75	8.42	6.47	6.78	62%
interior(13)	4.14	9.74	4.24	9.14	11.1	8.67	7.84	61%
sanitation(9)	7.59	7.73	8.85	8.56	7.07	6.18	7.66	85%
guidance(6)	2.19	3.97	3.09	4.13	5.09	3.36	3.64	61%
etc(11)	3.65	6.4	7.8	9.2	8.3	4.55	7.27	66%
total(50)	19.7	36.1	31.5	38.7	39.9	29.2	32.5	65%
	40%	72%	63%	78%	80%	58%	65%	

위생시설은 총점 9점으로 A, E, F대학은 평균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비교적 대·소변기의 높이와 손잡이의 위치, 세정장치, 누름 버튼식의 수도꼭지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잘 설치되어 있어 나머지 대학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평균점수는 7.66점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애학생을 위한 안내시설의 경우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촉지도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피난설비 등은 잘 설치되어 있으나, 음성 안내장치나 기타 유도신호장치는 미흡한 상태로 총점 6점 만점에 6개 대학의 평균점수는 3.64점으로 나타났다.

강의실 내부의 통로는 통행이 자유롭도록 이동식 책상과 의자로 배치되어 휠체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지만 장애학생을 위한 책상이나 의자가 특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은 미흡한 부분이다.

장애학생의 도서관 및 자료열람실 이용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학습활동을 할 수 있었다.

강당 등 다목적 집회실로 이용되고 있는 대강당은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폭을 80cm이상 확보하고 있었다.

체육관 및 구내식당은 주출입구에서의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잘 만들어졌으나, 체육관의 샤워시설은 좁은 폭과 높은 단차로 장애인의 접근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기숙사는 A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층간 이동에 제한이 없도록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숙사내 장애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기숙사 침실공간에서 휠체어 사용자의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편의시설평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위생시설은 기준대비 80%이상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매개시설, 내부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에서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위생시설을 제외하고 장애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는 것에 불편함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통합교육이 내용면에서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내 편의시설이 적절히 갖추어 있지 않다면 장애학생들은 또래 학생들과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불편 없이 공유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65.0%로 수적으로는 평균 이상 확보되었으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결과 장애학생들의 접근권은 여러 측면에서 제약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러한 장애학생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교육환경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해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주차장의 설치 위치나 크기, 주출입구나 장애인 주차장부터 승강기로 이르는 통로의 단차, 길에서 해당 목적지까지 촉지를 통하여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닥에 설치된 점자 블록을 제외하고는 일련의 유도 및 안내시설이 부재하였다. 이는 매개시설로부터 시작하여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에 이르기까지의 연계성이 부족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연속되는 길에 모든 영역에서 편의증진법의 계획원리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설비 및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어렵다. 그러므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수적인 확보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시각 및 청각장애를 위한 시설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영 면에서 대학 내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합도 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 면에서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대학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설치율 자체는 높았지만 세부항목에 대한 적합도는 저조했으며, 화장실에 청소도구가 보관되어 있다거나 너무 지저분하다는 등 운영 상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편의시설의 설치율 자체를 높이는 노력을 넘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의 관리를 적합하게 하는 것이 모든 학생을 위한 무장애 대학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 학교교육의 접근성과 교육권을 확보·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각 학교를 평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당국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겠다.

REFERENCES

- [1] G. A Choi, "Effects of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the inclusive pungmul program of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in high school on social distance toward disabled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2003.
- [2] Y. N Hwang,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the attitude of the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of education toward an inclusive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4.
- [3] Hunt, P., Alwell, M., Farron-Davis, F., & Goetz, L. "Creating socially supportive environments for fully included students who experience multiple disabiliti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 Vol. 21, No. 2, pp. 53-71. 1996
DOI: <http://dx.doi.org/10.1177/154079699602100201>
- [4] J. G. Lee, & J. S. Cho, "Evaluation for school facility by disabled experimental activ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 19, No. 1, pp. 47-64. 2006.
- [5] Y. J. Seo, & K. E. Na, "Analyzing fidelity of guidelines on accommodations to accessibility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of 4-year universities in seoul.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39, pp. 75-107. 2011
- [6] C. W. Kim, "A study on the campus life realities and support strategies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Dankook university, 2000.
- [7] H. J. Kim, J. G. Kim, & G. J. Seo, "A study on the facilities of university for disabled persons", *Collection of dissertations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Vol. 29, pp.61-75. 2000.
- [8] H. S. Yun & Y. I. Kim, "A qualitative study on the use of university libraries by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Visual Impairments Study Academic Journal*. Vol. 22, No. 1, pp.17-42. 2006
- [9] H. K. Shin, "A study on the university environment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Field of Natural Science Academic Journal*. Vol. 10, pp.1-12. 2003.
- [10] C. G. Yoo & G. B. Nam, "actual survey and research on campus convenience facilities considering accessibility of disable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6, No. 2, pp.29-38. 2004.
- [11] J. M. Seo, "A Study on the Realities of Access of the Integrated Education Institu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Improvement" InHa University, 2011.
- [12] T. K. Lee, S. Y. Lim & S. H. Lee, "Study on the Convenient Facilities for the Disabled, Handicapped Person in Main National Universities, Korea",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5, No. 9, pp.67-76. 2009.
- [13] J. J. Kim, "A study of expansion the facilities for disabled person in universities", Korea University, 2002.
- [14] S. I. Park, "A study on the Direction of Improv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the University of Seoul", Dankuk University, 2001.

장 명 화(Jang Myeong Hwa)

[준회원]



- 2013년 3월 ~ 현재 : 서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전공

<관심분야>
작업치료

배 선 영(Bae Seon Young)

[정회원]



- 2001년 2월 : 광양보건대학 작업치
료학과 졸업
- 2015년 2월 : 동신대학교 일반대학
원 작업치료학과 (박사수료)
- 2010년 9월 ~ 현재 : 서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작업치료, 장애정책, 사회복지

정 성 학(Jung Sung Hak)

[준회원]



- 2010년 3월 ~ 현재 : 서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전공

<관심분야>
작업치료

이 민 규(Lee Min Gyu)

[준회원]



- 2011년 3월 ~ 현재 : 서남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전공

<관심분야>
작업치료